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12.16.(토) ~ 2018.1.12(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마닐라 대학의 연계 어학원인 SLC에서 공부를 했다. Times-SCL는 수빅에 위치해있으며, 총 5층 건물이었다. 층마다 수업교실이 있었고 3층부터 한 층에 교실과 학생들이 생활하는 숙소가 있었다. 어학원 앞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수영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었다. 평소에는 카페테리아에서 급식을 받는 형식으로 식사를 하였으며 음식은 무척 맛있었다. 시설, 음식, 분위기 등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수업	Times- SLC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레벨테스트였다.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분반을 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부터 선생님과 수준별 반을 배정받고 수업을 바로 시작했다. 수업방법은 크게 1:1수업과 그룹수업으로 나뉜다. 문법, 숙어, 영단어, 읽기, 토익 스피킹, 쓰기 등 과목에 맞는 적절한 교재와 함께 5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되며, 모든 수업은 오로지 영어로만 사용해야 한다. 선생님마다 과제를 내주시지만 부담될 정도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 연습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 또한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선생님은 모두 무척 친절하시고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다. 영어로 잘 말하지 못한다면 일단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그것에 대한 틀린 문법을 고쳐주신다. 영단어수업이나 숙어 수업에 수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선생님께서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주셨다. 필리핀 선생님들은 영어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시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영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났다. 선생님들은 항상 활기 넘치시고 먼저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정 많고 친절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기억날 것 같다. 이런 수업과 선생님들 덕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뿐만 아니라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났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Activity 종류: 요트투어, 마닐라 투어, Anvaya Cove

	<p>내용:</p> <p>요트투어는 수빅에서 요트를 타고 바다를 보러 나가는 활동이다. 인생샷도 찍고 바다에서 수영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닷물이 한국보다 더 짜서 수영할 때 조심해야한다. 요트 안에 화장실과 탈의실 등이 있어서 불편함은 없었다.</p> <p>마닐라투어는 5명 정도의 학생과 한 명의 선생님이 하나의 팀이 구성된다. 지정된 장소 5곳으로 가서 인증사진과 영상을 찍는 것이 미션이며, 그 장소까지 오로지 학생들의 힘으로 찾아야한다. 물과 약간의 과자, 마스크가 꼭 필요할 것이다.</p> <p>Anvaya Cove는 세계 7대 리조트라는 명성에 맞게 아름다운 수영장을 자랑했다. 마음껏 수영하고 놀았으며 바다와 이어져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놀 싶으면 언제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습하고 더웠으나 교실 안에는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추웠다. 따라서 수업 갈 때 입을 긴팔 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낮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큰 마트에 경찰관들이 많이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했지만 밤이 되면 되도록 빨리 귀가하는 것이 좋다. 늦게 귀가할 경우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p>
숙소	<p>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숙소 각 방에 에어컨이 있어서 더위는 피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장실이나 샤워실, 침대 등 불편한 것은 없었으나 콘센트가 몇 개 없어서 멀티탭을 하나 챙겨서 가면 더 좋을 것이다. 평일은 밤 10시까지 통금시간이며 주말은 12시까지이다.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나 모기와 벌레가 많아서 모기기피제 등 사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p>
식사	<p>학교식당(O)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정해진 식사시간이 되면 카페테리아에서 급식을 받는 형식으로 식사를 했다. 한식이 나오며 정말 맛있다. 맛집이라고 생각 될 정도로 맛있어서 살이 빠지기는커녕 더 찌서 올 수도 있다. 음식이 안 맞을까봐 걱정 되서 한국음식을 따로 챙겨 올 필요는 전혀 없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한 건물에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10초만에 도착할 수 있다. 대형마트는 보통 FB를 이용하거나 택시를 사용하는데 한국 돈으로 250원, 3000~4000원 정도이다.</p>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63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용돈	330000	식사비용, 생활용품 쇼핑, 활동비용 등
합계	999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한 달 용돈으로 350~400달러가 적당하다. (체험비용, 생활용품, 쇼핑, 식사 등 모두 포함) 긴팔은 하나쯤 가져가는 것이 좋다. 교실 안에는 춥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리조트에 가기 때문에 수영복을 꼭 챙겨가야 한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 등 선생님들께 선물을 드리거나 선물교환 시간이 있으므로 선물용 한국 물건을 사가면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모기나 벌레, 도마뱀이 생각보다 많아서 모기 기피제와 물파스 등을 챙겨 가면 유용할 것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필리핀으로 꼭 다시 가고 싶을 만큼 좋았던 경험이었다. 가장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는 사람이었다. 정 많고 친절한 필리핀 선생님들께선 열정적으로 영어를 가르쳐주셨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선생님들을 보면서 저절로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다. 선생님들 덕분에 내가 그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 행복들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다. 마닐라 투어 때 모르는 시민에게 길을 물어보았을 때에도 대부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을 만큼 필리핀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나로선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는 것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가벼운 복습, 예습을 통해서 수업에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 드리면 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가르쳐주셨다. 보통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서 나의 영어실력을 눈에 띄게 발전시키는 것은 어려웠지만 영어에 대한 흥미와 중요성

을 알게 되었다. 지루하기만 했던 영어가 정말 재미있어졌고, 나의 미래에서 영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꾸준히 공부 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누가 시켜서 영어를 공부했지만 앞으로 영어가 재미있어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또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서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 다시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지원하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필리핀 음식과 한국음식을 같이 만들어서 선생님들과 다 함께 먹는 시간을 가졌다.</p>	<p>어학원에 있는 수영장인데 수영하고싶을 때 언제든지 가능하다.</p>
	
<p>진짜 맨날 맛있는 음식들을 해주신다. 거의 매일 과일도 주시고 고기도 주신다.</p>	<p>나의 인생 스테이크! '텍사스 조'라는 레스토랑에 가면 꼭 티본스테이크를 주문해야 한다. 미디엄 웰던으로 꼭 먹기를 강추한다.</p>



Anvaya Cove이다. 오른쪽에는 바다가 있으며 정말 아름답다.



요트투어 때 찍었던 사진이다.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다.